

현길언 초기 소설에 나타난 4·3과 제주

-1960~1970년대, 등단 이전 소설을 중심으로

방 선 미*

- I. 머리말
- II. 등단 이전의 문학 활동과 창작
- III. 등단 이전 소설의 양상
 - 1. 사적 기억의 분출로서의 4·3
 - 2. 제주와 제주민, 주변부의 삶
- IV. 나오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현길언의 등단 이전 소설을 고찰한다. 현길언은 1957년 제주문단에서 유일한 소설 중심의 학생동인지였던 『석좌』에서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1980년 『현대문학』에서 등단하기 이전인 1960~1970년에 제주도내 기관지와 신문, 도내문예지 등을 통해 30여 편의 소설을 발표하며 도내 작가로 활동하였다.

현길언의 등단 이전 소설은 크게 4·3을 다룬 것과 제주민과 같은 주변부 사람들의 삶을 다룬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소설에서 현길언은 지속적으로 공식역사에 가려져 있던 4·3에 대하여 유년의 기억을 꺼내어 아버지나 삼촌의 죽음으로 절망적 상황을 그려내었다. 또

*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박사 수료. pproffe@naver.com

한, 후자의 소설에서 현길언은 해녀, 제주 개발, 제주 농민, 재일제주인 등의 제주의 지역문화와 제주민의 삶을 이야기하였으며, 제주 설화를 토대로 4·3의 비극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현길언의 등단 이전 소설은 이후 그의 등단 이후의 소설에서 확장되거나 재발표된다.

주제어 : 현길언, 4·3소설, 등단 이전, 제주, 『석좌』

I. 머리말

현길언(1940~2019)의 등단은 『현대문학』에서 1979년 「城 무너지는 소리」(초회추천)와 1980년 「급장선거」(추천완료)를 추천받으면서 이루어졌다. 등단 이후 현길언은 2019년까지 40여 년간 90여 편의 단편소설과 10여 편의 중편소설, 그리고 14편의 장편소설을 비롯하여 8권의 청소년소설을 펴냈으며, 제주설화집, 산문집, 사진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글을 남겼다.¹⁾ 현길언이 『현대문학』에서 추천완료되었을 때, 그는

1) 소설집으로는 『용마의 꿈』(1984), 『우리들의 스승님』(1985), 『닿아지는 세월』(1987), 『우리 시대의 열전』(1988), 『무지개는 일곱색이어서 아름답다』(1989), 『배반의 끝』(1993), 『나의 집을 떠나며』(2009), 『유리 벽』(2011), 『누구나 그 섬에 갈 수 없을까』(2014), 『언어왜곡설』(2019) 등이 있고, 장편소설로는, 『불임시대-어떤 역사학자의 실종』(1987), 『투명한 어둠』 1, 2(1991), 『여자의 강』 상, 하(1992), 『회색도시』(1993), 『한라산』 1, 2, 3(1995), 『보이지 않는 얼굴』(1997), 『잊지 못할 일들은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1999), 『벌거벗은 순례자』(1999), 『관계』(2001), 『열정시대』(2008), 『꿈은 누가 꾸는가-섬의 여인, 김만덕』(2012), 『숲의 왕국』(2012), 『비정한 도시』(2015), 『묻어버린 그 전쟁』(2019) 등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 소설로는 『전쟁놀이』(2001), 『그때 나는 열한 살이었다』(2003), 『못자국』(2003), 『우리 집 식구들』(2005), 『자청비 자청비』(2005), 『다들 어디로 갔을까』(2010), 『낮선 숲으로 난 길』(2012), 『사막으로 난 길』(2014) 등이 있으며, 제주설화집으로 『제주도의 장수설화』(1981), 『제주설화집성 1』(김영돈·현용직 공편)(1985), 『제주도 이야기』 1, 2(1984), 산문집 『아름다운 별이 지구에서』(2004), 『광야를 건너는 나그네』(2005), 『주체적 삶과 참 행복』(2015), 『공원의 탄생』(2018), 사진집 『제주해녀』(2015) 등이 있다.

다음과 같이 등단소감을 밝힌 바 있다.

남들이면 지금쯤 신나게 써내다가 한풀 꺾이거나 아니면 소위 중견대열의 맨끝에 떡 버티어설 나이인데, 이제 시작을 한다니, 아는 사람들은 웃을 것이다. 세상에 할 일이 그렇게 없더냐, 아니면 소설 쓰는 일이 그렇게 좋아서냐고……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지독히도 않던 文學의 熱病에서 헤어나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돌아 다니다가 不惑의 나이가 되어 다시 글을 쓴다. 좋아서만도,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니다. 責務같은 것-거대한 역사에 陷沒되어가는 人間의 眞實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다.²⁾

위의 소감을 보면, 현길언은 41세가 되어 소설가로 등단한 것에 대해 “이제 시작”이며 “불혹의 나이가 되어 다시 글을 쓴다”고 그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길언의 겸손한 인삿말일 뿐이었다. 실제로 현길언은 불혹의 “늦깎이” 소설가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등단 이전에 이미 제주도내(이하 도내)에서 1960년~1970년대에 『제주신문』이나 기관지를 통해 적지 않은 소설을 발표하며 자신의 문학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다.³⁾ 즉, 현길언의 등단은 제주에서 20여 년 동안이나 미등단의 무명 작가로서 작품활동을 꾸준히 한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현길언이 현기영, 오성찬과 함께 제주를 대표하는 4·3소설 작가로서 인정받은 것은 1980년대 이후였다. 현기영의 「아버지」(『동아일보』, 1975. 01)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오성찬이 중앙문단에 등단하여 「잃어버린 故郷」(『현대문학』, 1975. 01)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4·3

2) 현길언, 「추천완료소감」, 『현대문학』, 1980. 06, 165쪽.

3) 김동윤은 이에 대해 “현길언은 1980년에 『현대문학』을 통해 추천이 완료되었다. ‘늦깎이 작가’라는 별칭이 붙기도 하지만 그는 등단 이전에도 제주도내에서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 왔다. 「호오이」(64. 11. 12~11. 22) · 「신장개업하는 마을」(69. 10. 20~11. 5) · 「유자꽃」(70. 2. 19~5. 18) · 「목련 꺾어지다」(71. 4. 23~5. 12) · 「바람이 분다」(72. 2. 7~5. 30) · 「말젯삼촌」(78. 7. 4~7. 17) 등 『제주신문』에 게재된 중·단편들이 그 사실을 말해준다. 현길언의 소설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품들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고 밝힌 바 있다.(김동윤,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현대문학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20권, 1999, 60쪽.)

소설이 일찍 주목받기 시작한 것에 비해, 이 시기 현길언의 4·3소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 시기 현길언은 4·3소설로 「호오이」 정도만 거론되었고,⁴⁾ 1980년대 이후 4·3소설 작가로 주목받은 후에도 등단 이전의 4·3소설은 그의 연보에서 누락되었다.⁵⁾ 현길언의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도 그의 등단작 「급장선거」 이후의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그의 4·3소설에 대한 석·박사 연구에서도 등단 이전 소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다.⁶⁾ 그러나 현길언은 1960년부터 1970년대까지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4·3을 다룬 소설을 발표하였으며, 제주와 제주민의 삶을 내부의 목소리로 담아내는 등 제주 문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같은 시기에 4·3을 다룬 작가들의 소설이 1, 2편에 그쳤던 것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발표된 현길언의 4·3소설이 등단 이후의 4·3소설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현길언의 4·3소설을 4·3문학의 테두리에 다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시기 현길언의 소설은, “제주도 설화, 폭력적 시대 상황에서의 윤리와 양심의 문제, 인간과 종교에 대한 성찰, 아이의 눈을 통한 성장과 통과제의의 세계” 등으로 평가되었던 현길언의 작품세계의 시작점들을 보여준다.⁷⁾ 그러므로 현길언의 작품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
- 4) 「호오이」는 『제주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로 4·3에 대한 “피상적 접근 단계”의 소설로 평가받았다.
- 5) 현길언, 「기억과 기록」(김진량·이재복, 『주변인의 삶과 문학』, 한양대학교출판부, 2005, 98-100쪽.), 현길언, 「연보」(『껍질과 속살』, 나남출판, 1993, 447-449쪽.), 현길언, 「연보」(『우리들의 조부님 외』, 동아출판사, 1995, 605-608쪽.), 현길언, 「연보」(『회색도시』, 고려원, 1993. 김진량·이재복, 「현길언의 작품·논저서지」, 위의 책, 505쪽) 등 각종 출판물의 연보에도 현길언의 작품은 등단 이후의 것만을 제시하고 있다.
- 6) 양철수, 「현길언의 4·3소설 연구」(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에서도 현길언의 4·3소설을 「귀향」(『현대문학』, 1982. 01)부터 정리하고 있으며, 박미선, 「4·3소설의 시점 연구」(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에서도 현길언의 4·3소설은 「귀향」부터 다루고 있고, 김동현, 「로컬리티의 발견과 내부식민지로서의 ‘제주」(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에서도 80년대에 발표된 소설을 다루고 있다. 이외의 학위 논문으로는 박연숙, 「현길언 역사동화 연구」(경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가 있다.

는 등단 이전의 소설을 함께 포함시켜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

이 글에서는 등단 이전인 1960~1970년대 현길언의 삶과 작품 창작 과정을 살피고, 등단 이전 현길언의 소설을 4·3을 다룬 것과 제주민과 같은 주변부 사람들의 삶을 다룬 것으로 나누어 그의 작품세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현길언의 작품세계에 촘촘히 접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Ⅱ. 등단 이전의 문학 활동과 창작

현길언은 1940년 3월 25일 남제주도 남원면 수망리에서 태어났으며, 1952년(13세)에 아버지의 높은 교육열로 제주시 오현중학교로 진학하게 된다.⁸⁾ 1950년대 제주는 한국전쟁으로 피난민의 입도가 급격히 늘어난 후였는데, 제주도로 급히 옮겨 온 정부의 각 기관, 단체의 요원들 중에는 당시 저명한 문화예술인, 학자, 언론인 등이 많았고 물론 다수의 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피난 예술인들의 활동이 결국 제주문화의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 6·25 전쟁 당시 대표적인 피난 문인은 계용묵, 장수철, 옥파일, 김묵, 최현식 등이 있다.⁹⁾ 1955년(16세)

7) 그의 작품세계는 “① 「용마의꿈」, 「광정당기」, 「그믐밤의 제의」, 「김녕사굴 본풀이」로 대표되는 제주도 설화와 이야기의 소설적 형상화의 세계, ② 「껍질과 속살」, 「신열」, 「투명한 어둠」, 「신용비어천가」, 「우리시대의 열전」, 『회색도시』, 「무지개는 일곱색이어서 아름답다」, 「사제와 제물」로 대표되는 폭력적 시대 상황에서의 윤리와 양심의 문제의 세계, ③ 「귀향」, 「우리들의 조부님」, 『한라산』 등으로 대표되는 4·3 사건과 역사에 대한 인식의 세계, ④ 『관계』, 『보이지 않는 얼굴』, 『벌거벗은 순례자』 등으로 대표되는 인간과 종교에 대한 성찰의 세계, 그리고 ⑤ 『전쟁놀이』, 『그때 나는 열한 살이었다』, 『못자국』 등으로 대표되는 아이의 눈을 통한 성장과 통과제의의 세계로 정리되고 있다.(이재복, 「정직성의 순도와 성실성의 육화」, 김진량·이재복, 같은 책, 48쪽 참조)

8) 이승수·高波·최한영·우미영, 「소설가 현길언론」, 한국언어문화 77집, 2022, 163쪽.

9) 한국전쟁기에 피난문인들을 중심으로 불씨가 지펴졌던 문학의 열기는 당시의 문학청년들과 대학 강의를 위해 제주에 온 문인들에 의해 이어지는 가운데 차

제주사범학교에 진학한 현길언은 피난문인들이 많이 거처하던 제주시 칠성로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난문인들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1957년(18세)에 현길언은 문학 동인지 『석좌』 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¹⁰⁾ 『석좌』는 1950년대 제주문단에서는 유일한 소설 중심의 학생동인지였으며, 1957년에 2회 발간된다. 현길언은 『석좌』에 두 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하였는데, 『석좌 1집』(1957. 7. 26)에는 「백치의 장」, 『석좌 2집』(1957. 12. 25)에는 「종말」이 실려 있다. 「백치의 장」은 T시에서 교편을 잡고 살아가는 상철이 타락하게 되어 학교를 그만두고 자살까지 생각하다가 예수를 떠올리며 다시 참된 삶을 모색하게 된다는 내용이며, 「종말」은 전쟁으로 팔과 눈을 잃었으나 성경에 의지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혁이 다리를 잃고 패배감에 빠져 살인까지 저지른 친구 준에게 성경을 건네준다는 내용이다. 두 편의 소설 모두 참혹한 현실에 맞서려는 의지와 “인간과 종교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이는 현길언 소설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현길언은 제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다음 해인 1959년(20세)에 제주대학에 야간부가 개설되자 중등학교 교사 시험을 포기하고 제주대학 국문과(야간)에 입학한다. 그해 현길언은 제주대 현상 공모에 「체온」이 당선된 후, 1960년(21세)에 『제주학보』에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를 실는다.

근차근 구체적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김동윤, 「전란 후의 제주문학」,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201쪽.)

- 10) 당시 제주시 칠성로에서 자취하던 남원 수망리 출신 제주사범학교 현길언의 자취방에 모여 동인지 발간에 대한 모임이 있던 후 오현고등학교 교사였던 김영돈 선생을 지도교사로 하여 『석좌』를 발간했다.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3절 해방이후의 제주문학(산문)」, 『제주도문학사』, 선진인쇄사, 2018, 485쪽.) 『석좌 1집』에 수록된 작품은 현길언 「백치의 장」(제주사범학교 3년), 김철희 「계모」(오현고등학교 2년), 전현규 「탈의」(제주사범학교 3년), 장순용 「종점」(제주상업고등학교 3년), 홍희구 「창」, 「권태」(오현고등학교 3년), 고치문 「산」, 「실수」(제주상업고등학교 2년), 현기영 「나」, 「그림자」, 「영원히 잊지 못할 일」(오현고등학교 1년)이다.(『석좌 1집』, 1957.07.26.). 『석좌 2집』에서 시는 홍권홍의 「중」, 「슬픈 지역」, 소설은 전현규의 「소년상」, 장순용의 「소리」, 현길언의 「종말」, 홍희구의 「상여소리」, 고치문의 「꿈」, 김철희의 「춘궁기」, 현기영의 「껌」이 있다.(편집부, 「제주문학 20년」, 『제주문학』 2집, 1973, 151쪽 참조).

이후 현길언은 군복무를 마친 뒤 1962년(23세) 5월 제주 동국민학교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 이듬해인 1963년(24세) 다시 제주대에 복학한다. 현길언은 1964년(25세)에 「호오이」와 「소리가 그치다」를 발표한 뒤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던 1966년까지 소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1967년(28세)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 다시 오현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면서 현길언은 많은 소설을 발표한다. 1967년 『제주도』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야기」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호오이(Ⅱ)」, 「바다 2」, 「전설」, 「정원풍경」, 「질식사」, 「유산」, 「독고장군전」, 「죽어 고향에 묻히리」 등을 발표하였으며, 제주신문에서도 「호오이」, 「신장개업하는 마을」, 「유자꽃」, 「목련 꺾어지다」, 「바람이 분다」 등을 연재하였다. 이 밖에 『월간제주사』에 「장군의 귀향」을 발표하였다.

1971년(32세) 제일고등학교로 부임한 현길언은 1972년(33세)에는 제주대 시간강사로 출장을 나가게 된다. 이 시기 현길언은 도내 문학단체인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문인협회>)의 회원이었다.¹¹⁾ <제주문인협회>는 1950년에 결성된 <제주문학동호인회>로부터 시작되는데, <제주문학동호인회>는 도내 최초의 문학단체였다. 1958년 8월 하순 <제주문학동호인회>가 해체되고 <제주문학인협회>가 결성되었으며 현길언은 <제주문학인협회>에서 소설 분과 회원으로 활동하였다.¹²⁾ <제주문학인협회>는 1962년에 <제주문학협회>로 결성되었다가 활동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¹³⁾, 1972년에 재발족하게 된다. 현길언은 <제주문학협회>가 재발족하였을 때 감사(監事)로 활동하

11) 1968년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부로 인준받은 한국문인협회는 1972년 제11회 한라문화제를 계기로 20여 명이 모여 제3대 회장으로 강원 시인을 선출하면서 협회를 재정비하여 1972년 기관지 『제주문학』을 창간했다. 이후 『제주문학』은 연간지로 꾸준히 발간했다.(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같은 글, 501쪽 참조)

12)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도지』 6권, 제주도, 2006, 158-160쪽 참조

13) 1960년 1월, <제주문학인협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제주문학자협회>가 창립되었다가 5·16 군사정변 직후 해체되면서 잠시 활동은 중단된다. <제주문학협회>는 1970년까지 존속되다가 1970년 초, 'L씨 가건' 등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해체상태가 된다.(제주도지편찬위원회, 위의 글, 160쪽 참조)

였으며¹⁴⁾, <제주문학협회>의 2대 부지부장을 맡기도 하였다.¹⁵⁾ 1972년에 <제주문학협회>는 『제주문학』을 창간하게 되는데, 현길언은 창간호에 「등애(비명)」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건달계」, 「피서기」, 「상흔」, 「기권을 해요」, 「빙의」, 「다락일기」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도내 기관지에서도 「열아홉 살」, 「곤혹」 등을 발표하였고, 『교육제주』에서 「무덤고 긴여름」을 4회에 걸쳐 발표하였으며, 『제주신문』에 「말젓삼촌」을 연재하였다. 등단 이후에도 현길언은 『제주문학』을 비롯한 도내 기관지에서 활동을 이어 나갔다.¹⁶⁾

현길언이 『제주학보』에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를 발표한 후로 1979년 등단 이전까지 도내에서 발표한 소설은 다음과 같다.

-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제대학보』 제3호, 1960. 12.
- 「호오이」, 『제주신문』, 1964. 11. 12~11. 22/10회.
- 「소리가 그치다」, 『제주도』 13호, 1964. 04.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야기」, 『제주시』 5호, 1967. 08.
- 「바다」, 『제주시』 6호, 1967. 12.
- 「호오이(Ⅱ)」, 『북제주』 59호, 1968. 11.
- 「바다 2」, 『제주시』 7호, 1968. 04.
- 「전설(傳説)」, 『남제주』 4호, 1968. 08.
- 「신장개업하는 마을」, 『제주신문』, 1969. 10. 20~11. 05/15회
- 「정원풍경」, 『제주도』 41호, 1969. 11.
- 「유자꽃」, 『제주신문』, 1970. 02. 19~05. 18/71회
- 「질식사(窒息死)」, 『제주도』 제45호, 1970. 08.
- 「장군의 귀향」, 『월간제주사』 1970. 08.

14) 「한국문협 제주도지부 회원명부」, 『제주문학』 창간호, 1972, 120쪽.

15) 고시홍, 「제주문단사」, 『제주문학』 13집, 1984, 265쪽.

16) 현길언은 등단 이후 1980년대에도 『제주문학』에서 「소문」(1979), 「우리들의 영웅담」(1980), 「등(背)」(1981), 「부끄러움에 관한 이야기」(1982), 「열전 2-밀감 이야기」(1983) 등을 발표하였다. 그 외 도내 기관지에서 「대변인과 교도주인」(『교육제주』 39호, 1979.), 단편 릴레이 「전설」(『제주도』 58호, 1979), 『월간관광 제주』에 콩트로 쓰는 제주 산조로 「낭(木) 서방」(1984.10.), 「옛필름 한 토막」(1984. 11), 「어떤 낙선자」(1985. 01), 「제위전」(1985. 02), 「가을 여심」(1985. 03) 등을 발표하였다.

- 「목련 꺾어지다」, 『제주신문』, 1971. 04. 23~05. 12/18회.
 「유산(遺産)」, 『제주도』 49호, 1971. 05.
 「독고장군전」, 『남제주』 15호, 1971. 03.
 「독고장군전」, 『남제주』 16호, 1971. 07.
 「죽어 고향에 묻히리」, 『제주도』 52호, 1971. 12.
 「바람이 분다」, 『제주신문』, 1972. 02. 07~05. 30/94회.
 「등애(蜚蠊(비뻥))」, 『제주문학』 1집, 1972. 12.
 「건달계」, 『제주문학』 2집, 1973. 12.
 「피서기(避暑記)」, 『제주문학』 3집, 1974. 10.
 「열아홉 살」, 『제주도』 62호, 1974. 04.
 「무덤고 긴여름」, 『교육제주』 25호, 1973. 12.
 「무덤고 긴여름 2」, 『교육제주』 26호, 1974. 06.
 「무덤고 긴여름 3」, 『교육제주』 27호, 1974. 12.
 「무덤고 긴여름 4」, 『교육제주』 28호, 1975. 04.
 「상흔(傷痕)」, 『제주문학』 4집, 1975. 12.
 「곤혹(困惑)」, 『개발제주』 12월. 1975. 12. 01.
 「기권(棄權)을 해요」, 『제주문학』 5집, 1976. 12.
 「빙의(憑依)」, 『제주문학』 6집, 1977. 12.
 「말젓삼촌」, 『제주신문』, 1978. 07. 04~07. 17/11회.
 「다락일기」, 『제주문학』 7집, 1978. 12.

위와 같이, 현길언은 등단 이전에 30여 편의 소설을 발표하였다.¹⁷⁾ 특히 신문소설 연재와 관련하여 『제주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1964년에 「호오이」를 연재할 때 이미 도내 작가로 그 입지를 다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17) 위의 소설 중 내용상 이어지는 작품이 있다. 「바다 2」은 「바다」에서 이어진 작품이다. 「바다」의 마지막에 <다음호에 계속>이라 되어 있으며 「바다 2」와 동일한 기관지에 실렸다. 「독고장군전」(『남제주』 16호)도 「독고장군전」(『남제주』 15호)과 이어진 소설로, 「독고장군전」(『남제주』 15호)의 끝에 <계속>으로 되어 있어 연작소설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내용상 「장군의 귀향」과 이어진 작품이다. 「무덤고 긴여름」은 「등애(비뻥)」의 속편으로 「무덤고 긴여름」을 실으면서 “이 작품은 <제주문학>창간호 <등애>의 속편이며, 전작장편(全作長篇)중의 일부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18) “단편 릴레이: 2월4일자부터 만 8개월 동안 本紙에 연재하여온 장편소설 『結婚』의 意味가 10월 4일자 2백6회로 大尾를 맞았다. 이에 앞서 本紙는 『結婚』의

등단 이전에 발표된 현길언의 소설은 등단 이후의 그의 소설과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신장개업하는 마을」에서 4·3 당시 아버지가 폭도로 몰려 죽은 후, 순애가 제주 관광붐에 편승하여 마담이자 첩으로 타락하는 과정은, 등단 이후 소설인 「불과 재」(『현대문학』, 1984. 12)에서 4·3 당시 무장대로 몰려 죽었던 교사 고진국의 딸 영애가 제주 관광붐을 타고 호텔사업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변주된다.¹⁹⁾ 「질식사」와 「정원풍경」에서 제시된 부적응자의 이야기는 등단 이후 「부끄러움에 관한 이야기」(『제주문학』 11집, 1982)로 확장된다. 「죽어 고향에 묻히리」는 일본으로 밀항했던 아버지가 유골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야기로 전개되는데, 등단 이후 「귀향」(『현대문학』, 1982. 01)으로 변주되면서 4·3의 사건들이 더해져 4·3소설로 발표되었다. 「열아홉 살」에서 다루어진 말젓삼촌의 무고한 죽음은 등단 이후 소설인 「지나가는 바람에」(『소설문학』, 1984. 02)로 변주된다. 「상흔」에서 언급된 화투치고 귀가하던 마을 청년들이 무고한 죽음이, 등단 이후 소설인 「우리들의 조부님」(1982)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야기한 사건으로 다시 등장한다. 그리고 「기권을 해요」는 등단작인 「城 무너지는 소리」(『현대문학』, 1979. 07)로, 「말젓삼촌」은 등단 이후 「別傳 I」(『현대문학』, 1983. 03)로, 「다락일기」는 같은 제목인 「다락일기」(『한국문학』, 1983. 07)으로 다시 발표된다.²⁰⁾

意味」에 이어 도내 작가들에 의한 단편릴레이를 처음으로 시도하고 高銀의 『九月病』, 曹在富의 『社會法 第一條』, 玄吉彦의 『호오이』, 高永琫의 『崩壤』, 鄭榮澤의 『孤獨한 凝視』, 崔玄植의 『夾竹桃』를 준비하였다.” (제주신문사, 『제주신문오십년사』, 1995, 484쪽.)

19) 「불과 재」는 『우리들의 스승님』(문학과지성사, 1985)에 수록된다.

20) 「지나가는 바람에」, 「우리들의 조부님」, 「城 무너지는 소리」, 「別傳 I」, 「다락일기」는 모두 『용마의 꿈』(문학과지성사, 1984.)에 수록된다. 이때, 「별전 I」은 「어린 영웅담」으로 수록된다.

Ⅲ. 등단 이전의 소설의 양상

1. 사적 기억의 분출로서의 4·3

지금까지 도내 작가에 의해 발표된 4·3소설은 전현규의 「4·3兒」(『제주도』 17호, 1964)를 첫 작품으로 평가하며, 현기영의 「순이 삼촌」(1979)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4·3을 다루어졌다고 정리되어 왔다.²¹⁾ 1960~1970년대의 현길언의 소설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가 공식적인 등단을 하기 전의 작품이며 발표지면도 주로 기관지나 신문이었다는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972년 『제주작가』가 창간되기 전에 소설을 발표한 전문문예지가 도내에 없었다는 제주도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²⁾ 게다가 이 시기 4·3소설의 발표지가 외지 작가들의 경우 그 발표지면이 전문문예지였던 것과는 달리, 전현규의 「4·3兒」(『제주도』 17, 1964. 11), 오성찬의 「하얀 달빛」(『제주도』 49, 1971. 05)의 경우에도 도내 기관지를 통해 발표되었다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²³⁾ 김동윤은 전현규의 「4·3兒」에 대해서 “제주도

21) 김동윤, <4·3소설작품 목록>,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76쪽 참조; 김동윤, <4·3문학 작품(집) 목록>,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같은 책, 405쪽 참조.

22) 1962년 11월에 「제주신보」와 「제민일보」가 「제주신문」으로 합병된다. 「제주신문」은 제주도 유일의 일간지로 60~70년대 제주문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60년대에 창간된 「제주도」, 「제주시」, 「남제주」, 「북제주」, 「교육제주」와 70년대에 제주도내 시도교육청에서 나왔던 「제주시교육」, 「남제주교육」, 「북제주교육」 등은 기관지 등은 행정기관의 홍보기능 외에 문화적, 문학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가졌었다.(고시흥, 같은 글, 257-259쪽 참조)

23) 「순이삼촌」 이전 초기 4·3소설은 다음과 같다. 외지 작가의 경우는, 허윤석, 「海女」(『문예』, 1950.02.), 황순원, 「비바리」(『문학예술』, 1960. 06), 오영수, 「後日譚」(『현대문학』, 1960. 06), 곽학송, 「執行人」(『창작과비평』, 1969. 가을), 박화성, 「어머니여 말하라(휴화산)」(『한국문학』, 1973. 12) 등이며, 도내 작가의 경우는 전현규, 「4·3兒」(제주도 17, 1964. 11), 오성찬, 「하얀 달빛」(『제주도』 49, 1971. 05), 현기영, 「아버지」(『동아일보』, 1975. 01), 오성찬, 「잃어버린 故郷」(『현대문학』, 1975. 01) 등이 있다.(김동윤, <4·3소설작품 목록>,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76쪽 참조)

청에서 펴내는 기관지 <제주도> 제17호에 수록된 이 작품은 제주 출신의 것으로서는 처음으로 4·3을 다룬 소설이지만 여태껏 조명된 적이 없다. 이 작품이 4·3소설로 거론되지 않은 것은 등단작가의 작품이 아닌 점, 발표지면이 문학전문지가 아닌 점 등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창기의 4·3문학으로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 작품이라고 본다.”²⁴⁾라고 밝힌 바 있다. 현길언의 4·3소설도 같은 맥락에서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등단 이전 현길언의 소설 중 4·3을 다룬 소설은 다음과 같다.

〈표 1〉 현길언의 1960~1970년대 4·3 관련 소설

제목	발표	주요인물	배경	중심 소재	주요 내용	갈등요인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1960.12.	나(중대장) 여공비	제주	토벌된 여공비의 사형문제	여공비 총살형 집행을 거부함	살해명령
소리가 그치다	1964.04.	태수(무장대) 형환(무장대)	제주	4·3무장대가 된 두 친구	매복중에 내려진 살해 명령을 거부함	살해명령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야기	1967.08.	나(건축기사)	제주	4·3 때 무장대로 죽은 아버지	다리를 보수하며 4·3의 상처가 극복되길 바램	아버지의 무고한 죽음
호오이	1968.11.	나(학생) 분이(해녀)	제주	4·3 때 무장대로 죽은 아버지	해녀가 되어 폭도로 내몰린 삶을 견뎌	4·3의 상흔
신장개업하는 마을	1969.10.	나(제주출신) 서울여자	제주	서귀포의 관광지화	4·3 때 아버지를 잃은 순애의 타락을 목격함	제주 개발과 4·3
유산	1971.05.	나(대학원생) 이원철(기자)	서울	4·3 때 무장대로 죽은 아버지	아버지로 인해 여권발급이 거부됨	4·3의 상흔, 연좌제
열아홉 살	1974.04.	나 성기 삼촌	제주	4·3 때 죽은 말젓삼촌	죽은 삼촌의 뼈를 이십 년만에 거둌	삼촌의 무고한 죽음
상흔	1975.12.	나 말젓삼촌	제주	4·3 때 죽은 말젓삼촌	삼촌의 죽음에 대한 아버지의 죄책감	삼촌의 무고한 죽음
곤혹	1975.12.	나 고선생	제주	4·3 때 무장대가 된 고선생	고선생의 죽음에 대한 기억과 상처	4·3의 상흔

24) 김동윤, 「4·3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34쪽.

위의 표를 보면, 이 시기 현길언의 4·3소설은 「호오이(Ⅱ)」, 「전설」까지 포함한다면 10편이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이는 현길언이 당시 공식역사에서 외면당했던 4·3을 문학장으로 끄집어내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등단 이전의 현길언의 4·3소설에 제시된 4·3 관련 사건들은 주로 그의 유년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²⁶⁾ 현기영의 「순이삼촌」이 1948년에 벌어진 북촌리 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학살에서 살아남은 자의 기억의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4·3의 진상규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이 시기 현길언의 4·3소설은 1948년 11월부터 1949년 1월 사이에 남원 일대(의귀리, 수망리, 한남리)에서 벌어졌던 토벌작전을 배경으로 폭도로 몰려 죽은 아버지(혹은 삼촌)의 죽음을 중심으로 4·3 당시의 소개과정의 공포와 고통, 폭도의 창에 죽은 할머니, 불탄 고향마을의 풍경들을 수난사적 입장에서 소설에 담았다.²⁷⁾ 그는 이 시기 4·3소설에서 주로 아버지의 죽음으로 4·3의 비극을 제시하였는데, 아버지의 죽음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다루어졌다. 하나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극복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25) 「호오이(Ⅱ)」, 「전설」도 4·3이 언급되긴 하나 주된 사건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26) 제주 4·3사태는 항상 새로운 곤혹을 내게 안겨 주고 있다. 첫째는, 유년기 그 혹독한 체험과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곤혹이다. 모두 미쳐서 날뛰던 그 시기에, 나는 걸로 드러나지 않은 폭력과 그것을 양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선량한 사람들의 굴욕과 무지를 무섭게 체험했다.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살아 있는 그 기억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다음으로 그러한 사태를 소설로 드러내는 데 대한 한계가 곤혹스러웠다. '80년대 초까지만도 그 일은 무척 조심스러워야 했다. 어떻게 드러내느냐는 망설임과 그렇게 드러냄으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 물음 때문에 곤혹스러움은 더했다.(현길언, 「제주 4·3사태에 대한 작가의 부채·역사와 소설에 대한 작은 생각」, 『제주문학』 19집, 1990, 42쪽)

27) 이승수·高波·최한영·우미영, 같은 글, 155쪽 참조(아버지를 따라 면사무소가 있는 남원리로 소개하여, 남원국민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하였다. 그곳에서 다시 무장대의 습격을 받았다. 4·3사건 때에는 스물도 안 된 두 삼촌이 미처 소개를 못하여 무장대로 몰려 죽었고 할머니 또한 무장대의 습격으로 희생을 당했다.(현길언, 「기억과 기록」, 김진량·이재복, 같은 책, 95-96쪽.)

먼저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소리가 그치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야기」(이하, 「고래 싸움」)가 있다. 현길언의 첫 4·3소설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복수심에 의해 토벌대가 된 '나의 각성 과정을 다룬다. '나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공비들을 죽이며 살인하는데, 쌍둥이의 엄마인 여공비를 만나면서 자신의 살인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에 현길언은 '나를 카인이라는 성경 속 인물과 연결시켜, 카인-되기를 거부하려는 '나의 선택을 통해 화해를 모색한다. 「소리가 그치다」는 현재(4·3) 무장대가 되어 지령에 따라 누군가를 저격하려고 기다리는 두 청년, 형환과 태수의 대화와 회상으로 전개된다. 그중 형환은 일제에 학병으로 끌려가 만주에서 팔로군을 처형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지 못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총을 쏘지 못한다. 이러한 형환의 태도는 휴머니즘적 태도로 읽히는데, 이 역시도 4·3의 비극이 죽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고래 싸움」은 '나가 4·3 당시 소개(疏開)해 갔던 S마을의, 부서진 다리를 건설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이 다리는 4·3 때 무장대와 토벌대의 전투로 부서지고 수리되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의 아버지는 폭도로 몰려 죽는다. '나는 이 다리를 다시 세우는 일로 4·3의 상처를 수습해보고자 한다. 「고래 싸움」은 이전에 발표되었던 「호오이」나 「소리가 그치다」와 달리 유년의 체험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이는 그의 4·3소설의 본격적인 시작을 연 소설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남겨진 자들의 상처를 다룬 소설로 「유산」, 「호오이」, 「신장개업하는 마을」가 있다. 「유산」은 전쟁피해자인 '나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나의 친구들의 아버지가 인민재판으로 죽거나 6·25 때 행방불명된 것과는 달리, '나의 아버지는 4·3 때 폭도로 몰려 죽는다. 따라서 '나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폭도의 자식으로 내몰렸으며, 현재에도 동백림간첩사건이 일어나자 연좌제로 인해 여권발급이 거부당한다. 현길언은 4·3을 아버지의 무고한 죽음이 벌어진 사건으로 드러내고, 남겨진 자의 고통을 보여준다. 「호오이」에서 4·3 당시 다섯

살이었던 분이는 학교 교장인 아버지가 폭도로 몰려 죽은 뒤 폭도의 자식으로 외면당한다. 이에 분이는 어린 나이에 해녀가 되었는데, 그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마을 사람들의 냉대를 바다에서 견디며, 한쪽 팔을 다친 후에도 물질을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분이의 의지는 내몰린 자의 고통과 극복의지를 보여준다. 「신장개업하는 마을」에서는 분이의 등가물인 순애가 등장한다. ‘나는 4·3 때 아버지가 잡혀간 뒤 혼자 남겨졌던 순애를 떠올리고, 관광지로 변해버린 서귀포에서 유흥시설로 변한 순애의 집을 발견한다. 게다가 소설은 순애가 김마담이 되어, 첩이 되었다는 설정으로 4·3 이후 순탄치 못했던 순애의 삶을 그린다. 이렇게 세 소설 모두 4·3 이후 남겨진 자들의 고통을 보여준다.

그 밖에 삼촌이나 선생 등 주변인의 죽음을 다룬 소설도 있다. 먼저 삼촌의 죽음을 다룬 것으로 「열아홉 살」, 「상흔」이 있다. 이 소설은 4·3 당시 말젓삼촌이 무장대로 몰려 어린 나이에 죽어야 했던 사건을 통해 이 죽음이 과연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인지 묻는다.²⁸⁾ 그리고 삼촌의 친구이자 선생이었던 자의 죽음을 다룬 소설로 「곤혹」이 있다. 이 소설은 무장대가 된 선생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 4·3 당시 ‘내가 겪었던 심리적 고통과 충격을 담아낸다.

이처럼 현길언은 이 시기의 유년에 기억을 동원해 희생된 자-아버지, 삼촌, 스승-의 죽음을 통해 4·3의 비극을 보여준다.²⁹⁾ “유년기 전

28) 이는 일제강점기에 소년대 지원병으로 입대했다가 전쟁에서 희생된 「말젓삼촌」으로도 변주된다. 현길언의 등단 이전 소설 중에서 일제강점기를 다룬 소설은 다음과 같다.

제목	발표	주요인물	배경	중심 소재	주요 내용	갈등요인
등애 (비맹)	1972.12.	나(교사)	-	징집을 피해 도망간 보구무라	식민의 삶과 친구의 압송, 제자의 자살	식민의 자각 일제의 압박
말젓 삼촌	1978	나 말젓삼촌	제주	소년대로 나갔던 말젓삼촌	해방 후 외면당한 삼촌의 죽음	일제에 강요된 희생

29) 김윤식은 전쟁 체험 당시의 작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작가군을 성인시기에 전쟁을 체험한 ‘체험 세대’, 유년기에 전쟁을 체험한 ‘유년기 체험 세대’, 전쟁 후에 태어난 ‘미체험 세대로 나눈다. 그중 유년기 체험세대를 세계의 눈뜸과 함께 오는 악의 과제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스타일의 다양화를 가능케 한 작가군으로 보았다.(김윤식, 「6·25전쟁문학-세대론의 시각」, 『1950년대 문

쟁 체험 세대에 의한 사적 기억의 소설화는 이데올로기의 왜곡을 피하며 전쟁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 장치로 활용되나 ‘순진한 눈’의 시점이 비극의 현실의 표면만을 제시할 뿐 그 아래 숨겨진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기도 한다.”³⁰⁾ 이러한 경향은 현길언뿐 아니라, 1940년 전후에 태어나 10세 전후에 4·3을 겪었던 유년기 체험 세대인 현기영, 오성찬의 4·3소설에서도 드러난다. “오성찬과 현기영은 모두 소년기에 4·3을 체험했는데, 「하얀 달빛」과 「아버지」에는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년의 입장에서 보는 4·3의 공포적 상황이 그려져 있다. 「하얀 달빛」은 무장대에 협조 도장 찍은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처형당하는 사건이 형상화되지만 그것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의미는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아버지」는 ‘폭도’로 입산한 아버지를 둔 소년의 의식세계를 심미적으로 그린 작품인데, 「하얀 달빛」과 마찬가지로 ‘4·3’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건 자체가 추상화되어 있다.”³¹⁾ 이 시기 현길언의 4·3소설도 총체적인 관점이나 극복의 구체적 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유년기 체험 세대의 한계를 보인다. 그러나 현길언은 “4·3”이란 정확한 역사적 호명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무장대의 폭력만이 아니라 잔혹했던 토벌대의 토벌과정까지 포착해 내며, 아버지의 죽음을 “스리쿼터”를 몰고 온 자들과 연결하여 국가폭력을 지적한다. 1960~1970년대 4·3에 대한 담론화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기에, 현길언은 공식역사의 후면에 존재했던 무고한 제주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시기 현길언이 4·3에 대한 화해와 극복의 모색은, 같은 시기 4·3을 다룬 다른 소설에서는 시도되지 못했던 것으로 현길언의 4·3 소설이 가진 이러한 주제의식의 의의는 작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4·3 때 무고하게 죽은 자들의 후손이 다시 연좌제로 억압당하는 부당

학연구』, 예하, 1991, 15쪽 참조)

30)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433쪽.

31) 김동윤, 「4·3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같은 책, 42-43쪽.

한 현실(「소리가 그치다」)이나, 일본 유학길에 오르는 아들이 사상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할까 걱정하는 아버지의 당부(「상흔」)는 4·3 이후 여전히 반공이데올로기가 작동되는 제주 사회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제주민의 아픔을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문제가 현길언의 등단 이전 소설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등단 이전의 소설은 의미를 갖기에 충분하다.

2. 제주와 제주민, 주변부의 삶

1960~1970년대 제주문학은 1954년 9월 21일로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이후에 형성된 제주 문단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제주문학은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을 피해 내려온 문인들을 중심으로, 문예단체 기관지, 동인지 등이 편찬되면서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제주문화』, 『비자림』, 『문주란』, 『시작업』 등이 출판되면서 시작된 것이다.”³²⁾ 특히 창간호이자 중간호였던 『제주문화』는 “제주도의 언어, 신화, 민요, 풍속 등에 대한 글들과 함께 문학작품이 적잖히 실려 있다”³³⁾ 이후 이러한 도내 작가들의 지역에 대한 모색은 <제주문인협회>가 주도되어 본격적인 문인활동이 시작된 1970년대에 와서 더욱 구체화되었다.³⁴⁾ 이 시기 현길언의 소설에서도 제주와 제주민의 삶을 다룬 소설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주변부 사람들의 삶으로 형상화되어 있다.³⁵⁾ 현길언의

32) 김동윤, 「전란 후의 제주문학」, 영주어문 7집, 2004, 155쪽 참조.

33) 김동윤, 위의 글, 157쪽.

34) 이 시기 제주를 소재로 등단한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면 정인수 「삼다도」(한국문학 1974), 이용상 「이어도 처녀(시조문학, 1976), 문충성 「제주바다」(문학과 지성, 1977), 강통원 「무직」(시문학, 1977) 등을 들 수 있다.(강영기, 「1970년대 제주문학에 나타난 제주적인 문학작품 고찰-『제주문학(濟州文學)』지(誌)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7집, 2004, 191쪽 참조)

35) 현길언은 제주와 제주설화를 통해 제주의 주변부성을 이야기하면서, “왜 제주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설화가 대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설화의식의 저변에는 육지(서울)와 제주가 중앙정부와 지방행정 지역의 관계로만 인식하지 않고, 억압하는 세력과 억압당하는 존재간의 대립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 대결구도를 직접 드러낼 수 없

등단 이전 소설 중에서 제주의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제주민의 삶을 다룬 소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 현길언의 1960~1970년대 제주민을 다룬 소설

제목	발표	주요인물	배경	중심 소재	주요 내용	갈등요인
바다 (「바다 2」)	1967 (1968)	시모(해녀) 서울방	제주	해녀인 어머니와 자식과의 갈등	물질을 거부당한 어머니의 슬픔	해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전설	1968.08	송영감 민(손자)	제주	용당신의 뜻과 인간의 욕망	용당신의 뜻을 거스른 사람들의 몰락과 죽음	운명과 욕망의 충돌
호오이(Ⅱ)	1968.11.	모관방(해녀)	제주	해녀의 삶	해녀인 모관방이 사람들을 구하고 죽음	생명을 위한 희생의지
죽어 고향에 묻히리	1971.12.	나 어머니	제주	아버지의 귀향 소식	아버지가 유골함에 담겨 돌아옴	재일조선인 인의 귀향
건달계	1973.12.	경술(농민)	제주	서울 자본에 잠식해가는 제주	일꾼으로 전락해 죽은 제주농민	자본의 횡포
피서기	1974.10.	나(시간강사)	제주	관광지로 변해가는 제주	서울 매춘부, 일본관광객 등에 실망	제주 개발

위의 표와 같이, 이 시기 현길언의 소설에서 제주와 제주민의 삶을 다룬 것은 해녀(「바다」, 「호오이」, 「호오이Ⅱ」, 「바람이 분다」), 제주 개발(「신장개업하는 마을」, 「건달계」, 「피서기」), 제주 설화(「전설」), 재일 제주인(「죽어 고향에 묻히리」)로 구분된다.

먼저, 해녀의 삶을 소재로 한 소설인 「바다」, 「호오이Ⅱ」를 보자. 「바다」에서는 해녀에 대한 신구의 갈등을 그려진다.³⁶⁾ 이 소설에는 어머니의 해녀질을 창피하게 여기는 아들과 해녀질을 하다가 죽고 싶은 어머니의 집념과의 갈등이 그려진다. 이 갈등에 제주로 시집을 온 서울 며느리 서울방(서울댁)이 끼어드는데, 서울방 덕분에 해녀 도구를 되찾은 시어머니는 바다로 향했다가 이를 알게 된 아들들에 의해 퇴락이

는 왕조 체제에서는 언어의 힘을 빌려 이야기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제주 설화는 제주사람들의 삶의 불모성과 그 탐구를 대신하면서 주변 지역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형상화하고 있다.”(현길언, 『제주설화와 주변부 사람들의 생존양식』, 태학사, 2014, 299-300쪽)

36) 이 글에서는 「바다」와 「바다 2」를 하나로 묶어 「바다」로 정리하였다.

망가진다. 해녀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은 해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가던 1960년대의 상황을 보여준다. 4·3을 다룬 「호오이」에서도 바다에 대한 갈망을 가진 해녀 분이가 제시되는데, 이 소설에서 강인한 해녀 표상은 4·3의 극복의지와 이어져 있어 주목할 만하다. 「호오이Ⅱ」에서는 모관방(모관택)이라는 해녀를 통해 생명에 대한 경외와 희생을 그려낸다. 모관방은 스무 해 전 남편이 발동선을 샀다가 시국(4·3) 때 죽은 후로, 그 상실을 물질로 잊으려 하는데, 모관방에게 바다는 생계를 꾸리는 터전이자 생애 고통을 묻는 공간이 된다. 모관방은 강영감 부자를 구하고 죽는데, 이러한 행위는 동네 사람들의 무능한 태도와 대조된다. 이 소설들에서 해녀는 바다와 싸우며 제 생을 꾸려 나가는 제주 여인들의 끈질긴 의지와 바다를 향한 집념을 보여준다. 특히 해녀의 이야기를 제주도 지명에 얽힌 전설과 연결하여 거부할 수 없는 제주인의 운명, 제주적인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해녀의 삶에 4·3을 연결하여, 이들의 삶이 제주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제주의 설화를 경유하여 다루어진 소설이 있다. 그 시작은 「호오이Ⅱ」이다. 이 소설에는 제주 설화가 서사 밑바닥에 깔려 있다. 용당오름에 안개가 끼는 것을 용당신의 분노로 이해하며 신의 뜻에 순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그것을 거부하여 죽음을 맞이한 모관방의 시아버지와 남편의 운명은 설화의 힘이 작동되는 제주 사회를 담아낸다. 이러한 제주 설화에 대한 관심은 「전설」로 이어진다. 이 소설에는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이 용당뚝에 빌러 갔다가 돌아가란 말을 거역한 죄로 애기업은 바위된 사연과, 안개가 용당오름의 상봉을 휘감으면 바다로 나가지 말라는 금기를 깬 송영감이 두 아들과 함께 죽은 사연이 배치된다. 이후 송영감의 손자 민은 발동선을 사서 제주로 돌아왔으나 4·3에 연루되어 무장군인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호오이Ⅱ」에서 모관방이 용당신의 뜻을 거스르며 강영감 부자를 구하려 바다로 나갔다가 죽은 것처럼, 「전설」에서도 용당신의 뜻을 거역한 자들은 돌이 되거나 죽음으로써 제주 설화의 강력한 힘을 드러낸다. 특

히 두 편의 소설은 모두 4·3으로 죽은 남편과 아들 민을 통해, 제주 설화에 4·3의 비극을 배치하여 4·3을 제주민의 관점에서 풀어낸다.³⁷⁾

그리고 현길언은 1960~1970년대 개발붐과 함께 관광도시로 변하는 제주의 현실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을 「건달계」, 「피서기」 등에서 이야기한다.³⁸⁾ 「건달계」는 제주농민 경술이 빗 때문에 땅을 서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물려받은 땅을 팔아야 하는 제주민의 열악한 상황과 대비를 이루며, 제주 땅이 육지 자본에 의해 잠식되어갔던 1970년대 상황을 보여준다.³⁹⁾ 또한 자본의 논리는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농약으로 상징화되고, 그 농약에 의해 경술이 죽는 설정을 통해 농민의 피폐함이 자본의 논리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피서지」에서 대학의 시간강사인 ‘나가 8년 만에 고향 제주로 여행을 와 제주의 인심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끼면서 시작한다. ‘나는 제주 바다에 더 이상 고향 사투리가 들리지 않으며, 그곳을 서울 매춘부들과 일본인 관광객들, 그리고 한국인 튀기 매춘부가 들어찬 현실과 목격하면서 제주 관광화에 경각심을 드러낸다. 이처럼 현길언은 서울과 제주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의 관광화와 개발이 서울의 자본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어, 제주 개발이 제주민의 삶과 무관한 것임을 지적한다. 제주 개발의 문제도 현길언의 소설에서 주로 다루어진 것이었는데, 그것은 서울(중앙)과 지방이라는 경계에서 개발로 내몰린 제주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다루어졌다.

37) 제주의 지명에 얽힌 전설을 다룬 작품은 등단 이후 「龍馬의 꿈」(1983), 「金寧蛇窟 본풀이」(1984), 「廣靜當記」(1984), 「배큰*(木) 서방」(1988), 「세 壯士 小傳」(1988) 등으로 확장된다.

38) 4·3을 다룬 「신장개업하는 마을」에서도 개발붐을 탄 서귀포를 4·3의 상처와 연결하여, 돈에 의해 잠식당하는 제주민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39) 6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제주도는 하나의 거대한 '방목장'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정부의 관광개발계획, 축산진흥정책에 따라 재벌들이 행정부의 비호 아래 중산간시대부터 잠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주도는 '태평양의 진주가 되었다. 토지수용령이 공포된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불붙기 시작한 투기열로, 일주도로변의 가옥들까지 상당수가 외지인의 손에 넘어가 있는 실정이다.(고시흥, 「제주문학의 전망과 과제」, 『제주문학』 19집, 1990, 22쪽)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 재일제주인의 문제를 제시한 소설로 「죽어서 고향에 묻히리」가 있다.⁴⁰⁾ 일제강점기부터 일본과 왕래가 많았던 제주민들은, 해방 이후로도 일본밀항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4·3으로 인한 검거와 학살의 위험을 피해 일본으로의 밀항이 급증하였는데⁴¹⁾, 현길언은 이러한 밀항의 문제를 지연된 귀향의 상황으로 제시한다. 소설에서 재일제주인 아버지의 귀향은 결국 죽음 이후에 유골 상자에 담겨 이루어진다. 죽어서라도 고향 제주로 돌아오고 싶었던 아버지의 염원을 통해, 수많은 밀항자들을 만들어 냈던 제주의 역사를 돌아보게 만들며, 이들의 귀향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과 재일조선인을 향한 왜곡된 시선에 문제를 제기한다.⁴²⁾

이처럼 현길언은 제주민의 삶을 제주 내부의 시선으로 그려내었다.

-
- 40) 재일제주인은 제주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다. 즉 이민을 가든지 불법 밀입국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일본에서 생활하는 제주가 원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재일제주인의 개념을 좀더 넓힌다면, 그것은 재일 동포 2세나 3세를 포함하여 그 1세대가 제주인으로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주 출신의 자녀’를 통칭할 수 있다.(강영기, 「문학에 나타난 재일재주인」, 『제주문학담론』, 국학자료원, 2006, 107쪽)
- 41) 1945년 12월 남한의 미군정당국이 사전에 미군정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귀환한 한국인의 재도일을 허가하지 않도록 일본의 GHQ에 요청한 이후로 1946년 3월 16일자로 한국인의 일본 재입국은 사실상 비합법화된다. 이후 제주도에서 일본으로의 밀항은 그 전체상을 파악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 시기 제주에서 일본으로 밀항해간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1947~50년이 되면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1947년 3·1절 집회로부터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가 시작된 후에는 그런 경향이 아주 현저하게 된다.(후지나가 다케시, 「재일 제주인과 ‘밀항’-‘재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의 조사에서」, 4·3과역사 9·10호, 2010, 157-164쪽 참조.)
- 42) 제주 문단에서 이러한 재일제주인의 문제는 이후에도 오성찬, 고시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재일제주인이었던 김석범, 김창생, 양석일도 관련 소설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소설로 오성찬 「잃어버린 고향」(1975), 현길언 「귀향」(1982), 「먼 훗날」(1984), 고시홍 「도마칼」(1985), 현길언 「서식지」(1993), 오성찬 「죽은 나무 꽃피우기」(1999) 등이 있으며, 고시홍의 『물음표의 사슬』에 수록된 「감격시대」(2013), 「비망록-죽어서 말하다」(2013), 「작은 모스크바」(2015)가 있다. 재일제주인의 소설로는 김석범 『까마귀의 죽음』(1988)에 실린 「허망한 꿈」, 『제일동포작가 단편집』(1996)에 실린 양석일 「제사」, 김창생 「세 자매」 등이 있다.

특히 해녀를 통해 강인한 삶에 대한 의지와 바다에 대한 집념을 보여 주거나 「바다」, 「호오이」, 「호오이Ⅱ」), 4·3의 후유증을 서귀포 관광개발의 문제와 연결하고 있다는 점(「신장개업하는 마을」, 「건달계」)에서 문제적이다. 생활인으로서 해녀의 모습이 제주문학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이후였음을 주지할 때, 「바다」에서 다루어진 해녀의 표상은 해녀를 생활인으로 제시하면서, 해녀가 가진 바다를 향한 의지와 자부심을 그려낸 것에 의미가 있다.⁴³⁾ 특히 시어머니의 통곡은 해녀를 낭만적이거나 성적인 것으로 인식하던 시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1960년대까지의 제주해녀에 관한 작품들은 김정한의 「월광한」, 허윤석의 「해녀」, 황순원의 「비바리」, 정한숙의 「해녀」·「굴밭 언덕에서」 등에서 보듯이 모두 외지인 작가에 의해 씌어졌다. 그런데 이들 작품에서는 대체로 제주해녀를 낭만적으로 인식하여 그 구체적인 삶의 양상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제주해녀를 이국적 이미지나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⁴⁴⁾ “이는 물론 제주 출신 소설가의 등단이 1970년대 이전에는 드물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 제주 출신 작가들의 경우 지역사회에 관한 이해도가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점을 안고 있던 외지 출신 작가들과는 구별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⁴⁵⁾ 그러나 이 시기 현길언은 이러한 외지 작가들의 시선과 명확히 구분되는, 도내의 사회변화와 이로 인한 해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인식하여 이를 통해 제주민의 삶을 그리고 있다. 게다가 현길언은 서울 자본에 잠식되어가는 제주의 모습을 4·3과 연결하여 그려내었는데, 1960~1970년대가 아직 제주 개발의 문제를 4·3의 문제와 연결한 소설이 제출되지 못했던 시기임을 염두에 둘 때, 시대를 읽는 현길언의 예리한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43) 1980년대 이후 생활인으로서의 해녀를 다루고 있는 작품은 고시홍, 「표류하는 이어도」(1980), 현기영, 『바람타는 섬』(1989), 오성찬,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2000) 등이 있다.(김동윤,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해녀」, 『4·3의 진실과 문학』, 같은 책, 344쪽 참조)

44) 김동윤, 위의 책, 356-357쪽.

45) 김동윤, 위의 책, 333쪽.

1960~1970년대 현길언의 소설 중에서 사회에서 밀려난 부적응자들의 고뇌를 다룬 것이 있다. 현길언의 등단 이전 소설 중에서 주변부로서 부적응자의 삶을 다룬 소설은 다음과 같다.

〈표 3〉 현길언의 1960~1970년대 부적응자 관련 소설

제목	발표	주요인물	배경	중심 소재	주요 내용	갈등요인
정원풍경	1969.11.	나(신박사) 정(고시생)	서울	아버지의 욕망	헛된 욕망에 무너지는 삶을 목격함	인간의 헛된 집념
질식사	1970.08.	나(교사) 그(학생)	제주	부적응자로 내몰린 제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함	획일화된 사회
목련 꺾어지다	1971.	나(기자)	-	가망없는 환자를 내치는 병원	병원에 항의해보지만 정신병자로 내몰림	부조리한 사회
기권을 해요	1976.12.	나(과장)	제주	임금체불로 인한 파업	육지 재벌의 만행에 순응함	강자와 다수의 논리
빙의	1977.12.	수진 신사	-	그의 무덤에서 만난 신사	신사를 그로 착각하며 동류애를 느낌	상실감과 회복의지
다락일기	1978.12.	김안나 (양공주) 최철민 (수배자)	서울	양공주의 집에 숨은 수배대학생	서로를 구원하지 못한 채, 연행됨	구원없는 사회

위의 표와 같이, 이 시기 현길언의 소설 중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의 고뇌와 방황을 제시한 소설로는 「정원풍경」, 「질식사」, 「목련 꺾어지다」, 「기권을 해요」, 「다락일기」 등이 있다. 먼저, 「정원풍경」은 1960년대 말을 배경으로, 아버지의 고집으로 11년째 사법고시를 준비 중인 친구 정과, K중학 입학 을 위해 재수를 하는 그의 아들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정 일가의 모습은 인간의 헛된 욕망과 집착을 보여준다. 「질식사」에서 교사인 한때 수재로 불렸으나 정신병력을 보이게 된 학생을 다룬다. 그는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에 질식할 것 같은 충동을 느끼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자살하는데, 부적응의 까닭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목련 꺾어지다」에서 ‘나는 기자로, ‘나가 쓴 신문기사를 문제삼은 국장과 사장에 의해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는 옆 침대의 환자가 갑자기 특별실로 옮겨진 사건을 추적하다가, 가망없는 환자를 특별실로 보내 죽게 하거나 퇴원시키는 병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알아낸다. 이에 ‘나는 항의하다가 정신과

로 강제 입원하게 되면서, 저항의 목소리조차 막혀버리게 된다. 「기권을 해요」에서도 지역의 회사가 서울 재벌기업에게 넘어가면서 벌어진 임금체불과 퇴직금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싸우려는 ‘나가 기권을 권유받는 과정을 그린다. 「다락일기」는 미군부대 양공주인 김안나와, 도망자인 대학생 최철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안나는 미군부대 물건을 빼돌리다가 미군에 걸려 매춘까지 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구원이었다고 여기며, 철민은 수배를 피해 안나의 집에 숨어들지만,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며 구원받지 못한 채로 경찰에 잡힌다.

현길언은 인물들이 왜 사회에 편입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까닭에 대해 사회부적응의 원인이나 저항의 대상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부적응과 도피는 그 극복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모색되지 않고, 자살이나 체포와 같은 결말로 이어진다. 그러나 「질식사」나 「다락일기」에서 보이는 부적응적 삶은, 등단 이후 동일한 모티프를 지닌 「부끄러움에 관한 이야기」(1982)이나 「이상한 끈」(1984)에 와서는 “학원 소요 사태 주모와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유신 이후 형무소에 수감된” 상황 등으로 그 부적응의 까닭이 구체화된다. 따라서 「질식사」나 「다락일기」의 인물들의 무기력한 삶은 이 소설들이 1970년대 유신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응전을 하지 못한 시대적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전원풍경」의 교수, 「질식사」의 교사, 「목련 꺾어지다」의 기자, 「기권을 해요」의 쟁의를 주도하는 과장, 「다락일기」의 수배된 대학생 등은 부조리한 현실을 인식하고 또한 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준다. 현길언은 이러한 인물을 통해 올바른 지식인의 역할이 무엇인가는 모색하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1960~1970년대 현길언은 주변부로 밀려나버린 제주민의 소외된 목소리를 계속 소설로 끌어내려 하였으며, 독재와 유신으로 얼룩진 시대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놓치지 않고 그의 등단 이전 소설에 담아내었다.

IV. 나오며

현길언은 『현대문학』에서 등단하기 이전부터 도내에서 1960~1970년대 30여 편에 걸쳐 소설을 발표하며 소설가로서 목소리를 내었으나, 지금까지 이 시기의 소설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현길언은 1957년 제주문단에서는 유일한 소설 중심의 학생동인지였던 『석좌』에 소설을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도내 기관지와 신문, 그리고 1972년에 창간된 『제주문학』 등을 통해 소설을 내놓았다. 또한 이 시기 발표된 소설은 등단 이후의 소설에서 확장되거나 재발표되었는데, 이는 현길언의 등단 이전의 소설이 등단 이후의 소설과도 무관하지 않다.

등단 이전 현길언의 소설은 크게 4·3에 희생된 개인의 삶을 다룬 것과 제주, 제주민 등 주변부 사람들의 삶을 다룬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소설은 아버지나 삼촌, 스승의 죽음 등을 통해 접근되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다룬 것 중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소리가 그치다」, 「고래 싸움」은 미약하게나마 극복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호오이」, 「신장개업하는 마을」, 「유산」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자들의 상처를 보여준다. 또한 「열아홉 살」, 「상흔」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어린 나이에 죽은 말젓삼촌의 비극을, 「곤혹」에서는 스승의 죽음으로 변주된다. 이처럼 4·3를 다룬 소설은 유년기 체험 세대의 특징을 보이며 기억된 비극을 통해 은폐되었던 4·3을 들추어내어 4·3 때 자행된 폭력과 희생의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연좌제, 재일제주인의 존재 등을 통해 4·3 이후 제주민의 삶에 여전히 작동되는 이데올로기의 폭력을 보여준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다.

후자의 소설은 제주, 제주민의 삶과 사회 부적응자로 내몰린 자들의 이야기로 제시된다. 먼저, 「바다」, 「오호이Ⅱ」에서는 해녀의 삶을, 「건달계」, 「피서기」는 제주 개발에서 밀려난 자들의 삶을, 「전설」은 「오호이Ⅱ」와 함께 제주 설화에 맞섰던 자들의 삶을, 「죽어 고향에 묻히리」는 재일제주인 삶을 각각 다루면서 소외된 삶을 보여주었다. 특히 현길

언은 이 시기 낭만적으로 제시되었던 해녀표상에서 벗어나 해녀를 모진 바람과 싸우는 집념과 의지를 가진 생활인으로 제시하였다. 게다가 「호오이 Ⅱ」, 「전설」은 제주 설화에 4·3의 비극을 배치하여 4·3을 제주적 관점에서 풀어내었다. 그것은 제주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모색된 것이며, 제주 내부의 시각으로 발견된 것이었다. 사회 부적응자들이 등장하는 소설로 「정원풍경」, 「질식사」, 「목련 꺾어지다」, 「기권을 해요」, 「다락일기」 등이 있다. 이러한 부적응자들의 삶은 독재와 유신의 시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현길언은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인의 시각을 함께 배치하여 올바른 지식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한다.

이후 현길언의 등단 이전의 소설을 그의 등단 이후의 소설과 관련지어 다시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현길언 외, 『석좌 1집』, 1957.07.26.
 _____, 『석좌 2집』, 1957.12.25.
 현길언,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제대학보』 제3호, 1960.12.
 _____, 「호오이」, 『제주신문』, 1964.11.12~11.22/10회.
 _____, 「소리가 그치다」, 『제주도』 13호, 1964. 04.
 _____,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야기」, 『제주시』 5호, 1967.
 08.
 _____, 「바다」, 『제주시』 6호, 1967. 12.
 _____, 「호오이(Ⅱ)」, 『북제주』 59호, 1968. 11.
 _____, 「바다 2」, 『제주시』 7호, 1968. 04.
 _____, 「전설」, 『남제주』 4호, 1968. 08.
 _____, 「신장개업하는 마을」, 『제주신문』, 1969. 10. 20~11. 05/15회
 _____, 「정원풍경」, 『제주도』 41호, 1969. 11.
 _____, 「유자꽃」, 『제주신문』, 1970. 02. 19~05. 18/71회
 _____, 「질식사」, 『제주도』 제45호, 1970. 08.
 _____, 「장군의 귀향」, 『월간제주사』 1970. 08.
 _____, 「목련 꺾어지다」, 『제주신문』, 1971. 04. 23.~05. 12/18회.
 _____, 「유산」, 『제주도』 49호, 1971. 05.
 _____, 「독고장군전」, 『남제주』 15호, 1971. 03.
 _____, 「독고장군전」, 『남제주』 16호, 1971. 07.
 _____, 「죽어 고향에 묻히리」, 『제주도』 52호, 1971. 12.
 _____, 「바람이 분다」, 『제주신문』, 1972. 02. 07~05. 30/94회.
 _____, 「등애(비맹)」, 『제주문학』 1집, 1972. 12.
 _____, 「건달계」, 『제주문학』 2집, 1973. 12.
 _____, 「피서기」, 『제주문학』 3집, 1974. 10.
 _____, 「열아홉 살」, 『제주도』 62호, 1974. 04.
 _____, 「무덤고 긴여름」, 『교육제주』 25호, 1973. 12.

- _____, 「무덤고 긴여름 2」, 『교육제주』 26호, 1974. 06.
_____, 「무덤고 긴여름 3」, 『교육제주』 27호, 1974. 12.
_____, 「무덤고 긴여름 4」, 『교육제주』 28호, 1975. 04.
_____, 「상흔」, 『제주문학』 4집, 1975. 12.
_____, 「곤혹」, 『개발제주』 12월, 1975. 12. 01.
_____, 「기권을 해요」, 『제주문학』 5집, 1976. 12.
_____, 「빙의」, 『제주문학』 6집, 1977. 12.
_____, 「말젯삼춘」, 『제주신문』, 1978. 07. 04~07. 17/11회.
_____, 「다락일기」, 『제주문학』 7집, 1978. 12.
_____, 『용마의 꿈』, 문학과지성사, 1984.
_____, 『우리들의 스승님』, 문학과지성사, 1985.
_____, 『우리들의 조부님』, 고려원, 1990.

2. 논저

- 고시홍, 「제주문단사」, 『제주문학』 13집, 1984.
_____, 「제주문학의 전망과 과제」, 『제주문학』 19집, 1990.
강영기, 「1970년대 제주문학에 나타난 제주적인 문학작품 고찰『제주문학』지(誌)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7집, 2004.
_____, 「문학에 나타난 제일재주인」, 『제주문학담론』, 국학자료원, 2006.
김동윤,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_____,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_____, 「전란 후의 제주문학」, 『영주어문』 7집, 2004.
_____,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_____,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현대문학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20권, 1999.
김윤식, 「6·25전쟁문학-세대론의 시각」,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김윤식·정호응, 『한국소설사』, 예하, 1993.
김진량·이재복, 『주변인의 삶과 문학』, 한양대학교출판부, 2005.
이승수·高波·최한영·우미영, 「소설가 현길언론」, 『한국언어문화』 77

집, 2022.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도지』 6권, 제주도, 2006.

제주신문사, 『제주신문오십년사』, 1995.

편집부, 「제주문학 20년」, 『제주문학』 2집, 1973.

「한국문협 제주도지부 회원명부」, 『제주문학』 창간호, 1972.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3절 해방이후의 제주문학(산문)」,
『제주도문학사』, 선진인쇄사, 2018.

현길언, 「제주 4·3사태에 대한 작가의 부채-역사와 소설에 대한 작은
생각」, 『제주문학』 19집, 1990.

현길언, 『제주설화와 주변부 사람들의 생존양식』, 태학사, 2014.

_____, 「추천완료소감」, 『현대문학』, 1980. 06.

후지나가 다케시, 「재일 제주인과 ‘밀항’-재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사
를 기록하는 모임의 조사에서」, 4·3과 역사 9·10호, 2010.

ABSTRACT

4·3 Incident and Jeju in Hyun Gil-eon's
Early Short Stories

—Focusing on the Short Stories before his debut
in the 1960s and 1970s

Pang, Seon-mi*

Hyun Gil-eon made his voice as a novelist as he published 30 short stories in the 1960s and 1970s inside the province even before he made his debut in 『Modern Literature』, but these short stories at the time have not been examined properly. Starting with the introduction of short stories in 『Seokjwa』 which was the only novel-oriented student coterie magazine in Jeju literary circles in 1957, Hyun Gil-eon published short stories through provincial government organs and newspapers, as well as 『Jeju Literature』 which was founded in 1972.

Hyun Gil-eon's short stories before his debut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ose dealing with the lives of individuals who were sacrificed in the 4·3 Incident and those dealing with the lives of people living on the margins of society, such as Jeju and Jeju residents. The former short stories tell the story through the death of his father, uncle, or teacher. The novels about the 4·3 Incident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tion who experienced the incident childhood, while disclosing the 4·3 Incident which had been covered up through remembered tragedies to raise the issue of violence and sacrifice committed during the incident. Besides, it is

*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e violence of ideology that still functions in the lives of Jeju residents after the 4·3 Incident through the existence of guilt-by-association and Jeju residents in Japan. The latter short stories are based on the story of Jeju, the life of Jeju residents, and the people living on the margins of society as social misfits. He showed the alienated life by dealing with various lives of Jeju residents, such as haenyeo, Jeju development, Jeju narratives, and Jeju residents in Japan. In particular, Hyun Gil-eon presented haenyeo who is living with tenacity and will to fight against the harsh wind, breaking away from the romantic representations of haenyeo presented by foreign writers at this time. In addition, he talked about the 4·3 Incident from the Jeju perspective by reflecting the tragedy of the incident in Jeju narratives. This was sought based on the space of Jeju and was found from the perspective of Jeju. The short stories dealing with the lives of social misfits are not irrelevant to the reality of dictatorship and Yushin in the 1970s. Therefore, Hyun Gil-eon sought the correct roles of the intellectual from the viewpoint of an intellectual who can critically look at the absurdity of society.

It seems necessary to re-examine Hyun Gil-eon's short stories before his debut in relation to the short stories after his debut.

Key-words: Hyun Gil-eon, 4·3 Novel, before the debut, Jeju, *Seokjuwa*

논문투고일 2023. 2. 24.

심사완료일 2023. 3. 1.

게재확정일 2023. 3. 10.